

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 중 말씀

여성의 사회 진출에 힘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성과가 눈부십니다

여성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좋은 꿈 꾸셨습니까. 저도 좋은 꿈꾸고 새해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니까 꿈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여성들이 좀 더 사회에 진출해 함께 손잡고 나가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꿈 한 번 더 꾸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성 마술사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여성도 마술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비교적 깡다고 생각하는데도 제 딸아이가 마술 배운다고 종이나 보자기를 갖다 놓고 주물럭거리면 걱정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안혜경씨가 노래할 때는, 내년 이 자리 올 때는 춤을 배워서 노래할 때 춤을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악, 예술, 체육 등에서 여성들이 거두는 눈부신 성과가 정말 장합니다. 그래서 한국 남성들이 다 자리를 내놔야하는 거 아닌가 걱정들 때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장한 업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어서 확실히 여성의 시대가 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성 신년인사회 행사 온다고 자료 주는 것을 보니 역시 작년 보았던 통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 인권척도나 정치 진출 정도가 아직 낮습니다. 저에게, 우리에게 책임 있는 거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성 개인들의 자질은 우수하는데 아직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조직을 짜서 하는 일에는 장벽이 많고 스스

로 역량을 발휘할 기회도 작아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정부진출을 돕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지은희 장관에게서 중요한 점을 짚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목표만 내걸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실효성 있게 해보겠습니다. 올해 개혁이 이루어진 호주제도 제가 아무리 바쁘게 챙겼더라도 여성장관이 직접 관장하지 않았으면 뒤로 미뤄졌을 것입니다. 법무부, 검찰이 은근히 보수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하나 챙기기보다는 무엇이든 여성장관이 직접 부딪혀 하는 방안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인사수석실의 3개 비서관 중 한 사람을 여성으로 채용해 여성과 인사에서 소외되기 쉬운 영역의 사람들을 챙기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사수석실이 청와대 참모나 장관 등 주요 공직을 챙기는 자리입니다. 실제 인사도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도화돼서 인사수석실에서 발굴하고 추천하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하고 어떤 자리가 여성이 필요한 자리인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남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라면 여성을 먼저 한번 써보자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만 만들어 놓는다고 굴러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활용해 주십시오.

올해에는 선거가 있는데 모두 물갈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변화가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여성들이 대거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하는 자리가 욕먹는 자리고 쉽지 않은 험난한 자리입니다. 차마 거기 가서 발목 적시기가 내키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들 정서이겠지만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총선 지나면 정치가 상당히 안정되면서 일본, 미국처럼 물갈이가 자주 없는 정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해서 여성계에서 분발하시

기 바랍니다.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가꿔나가야 합니다

작년도에 약속했던 보육문제의 확대는 아직 법이 국회에 걸려 있지만 실질적으로 될 것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출산율은 저하되고 이혼율이 높아져 가정에 대한 가치나 가족의 구조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남성들도 걱정해야겠지만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가정에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가치는 예전과는 다른 구조와 체계 속에서도 잘 가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성 지도자께서 조언해 주시면 잘 가꿔나가겠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문제 자주 잊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살아온 경험은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 이맘때는 여성 여러분들에게 큰 발전이 있었던 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